‘9일, 수학이 즐거워진다’

전북교육청, 2025 고교생 수학 마스터 캠프 전주비전대서 개최

도내 고교 30개팀 대상 성과 공유… 전체·분반 특강 나눠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9일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2025 수학 마스터 캠프’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캠프는 ‘수학 마스터즈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도내 일반계 고등학생 30개 팀을 대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학 마스터즈클럽은 팀별 전담 수학 교사와 함께 수능형 문제 해결력 신장, 맞춤형 멘토링, 성적 분석 및 학습 전략 제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운영된다.

캠프는 전체 특강과 분반 특강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체 특강에서는 ‘스스로 성장하는 수학 공부법’ 강의를 통해 실전 문제 해결 전략과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분반특강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로 나눠 현장 교사와 교수진이 강사로 나서 수준 높은 학습 전략을 전달하고, 학습 습관 형성을 돕는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수학적 자신감을 쌓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심화 학습 경험이 학업 성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페루를 공식 방문한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일행이 페루 국립공과대학과의 협력 확대, JBNU 국제센터 설립, 주요 정부기관과의 협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중남미 유학생 유치 전략적 교두보 마련

전북대, 페루 국립공대와 교류협력 확대… JBNU 국제센터 설립 등 가시적 성과 거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중남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 마련에 본격 나섰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페루를 공식 방문해 페루 국립공과대학과의 협력 확대, JBNU 국제센터 설립, 주요 정부기관과의 협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출장에서 전북대는 페루 국립공과대학과 교환학생, 어학연수, 복수학위 등 국제협력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JBNU 국제센터 설립을 계기로 향후 중남미 유학생 유치의 전진기지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양 총장은 페루 국영조선소(SIMA)와 까야오시(Callo)가 공동 주최한 제6회 KRPE 국제컨퍼런스에서 ‘Physical AI를 접목한 까야오 스마트 항구 물류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전북대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 자리에는 주페루 한국대사, 페루 국방부 차관, 교통청장, 까야오 국립대 총장 등 정부 및 학계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7월 30일에는 페루의 주요 국립대학인 카야오대학과 MOU를 통해 교환학생, 단기연수, 복수학위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합의했다.

또한, 최종욱 주페루대한민국대사와 후속 공공외교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 총장은 페루 리마에서 쿠스코, 맞추픽추 지역으로 일정을 이어가며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문화·예술, 경영관리 위탁 교육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페루 주요 도시와의 교류 기반을 넓히고 지역 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브라질로 이동해 상파울로대학, 항공기 제조업체 Embraer, 브라질 국방부, 주브라질한국대사관, 라틴연방대학 등을 잇달아 방문해 국제협력과 첨단 방위산업학과 협력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페루와의 협력은 유학생 5천 명 유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될 것”이라며 “중남미 지역과의 연구,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전북대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육혁신 성과 A등급’

전주교대, 2년 연속… 총사업비 32여억원 확보

‘선택하는 배움, 설계하는 미래’ 실현 기틀 다져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년 연속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육혁신 성과 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혁신 성과 A 등급을 획득하면서 총 사업비 약 32억원을 확보, ‘선택하는 배움, 설계하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틀을 다졌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습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함양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과 진로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 설계 역량을 높인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병춘 총장은 “국립대학육성사업 교육혁신 성과 A등급이라는 결과는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대학으로서 학생 중심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9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 인사 발표

채선영 전주교육장 등 486명

교육현장 안정감 확보 방점

채선영

김윤범

조영민

양성화

최재일

정미정

이혜란

김정기

김지유

강진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7일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교(원)장 승진 40명, 교(원)감 승진 59명,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183명 등 총 486명에 대해 이뤄졌다.

먼저, 신임 교육장으로는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선영(현 정책기획과장)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윤범(현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민(현 용진중학교 교장)을 각각 임용했다.

본청 과장으로는 △정책기획과장 양성화(현 성당중학교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최재일(현 전주양지초등학교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정미정(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이혜란(현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장)을 각각 발령했다.

이어 직속기관장에는 △미래교육연구원장 김정기(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지유(현 민주시민교육과장) △과학교육원장 강진순(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각각 임용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내년 6월까지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교육현장의 안정감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소통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인사를 중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력신장과 교권 보호 등 핵심정책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전북교육 신뢰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장 및 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0일 실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교육 체계 구축

전북대 운영 전북환경보건센터, 도 환경교육센터와 ‘맞손’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북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용현)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종만)가 7일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교육 체계 구축 및 환경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맞춤형 환경보건교육 체계화와 환경보건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는 지역 내 환경 강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건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환경교육센터는 교육 대상자 모집 등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환경보건 관련 정책 자문, 세미나·워크숍 공동 개최, 교육 효과 분석 및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용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전북도민이 환경보건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전문 강사 양성과 민감계층 맞춤형 환경보건 교육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종만 센터장은 “환경교육센터가 가진 교육 기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환경보건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한층 실효성 있는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연구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MEGA US EXPO 참가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오는 14~16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리는 ‘MEGA US EXPO 2025’에 참가해 전북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바이어 매칭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는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의 ‘2025 전략기술 발굴 및 연계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제품의 해외 진출과 수출,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의 해외 유통망 확보와 마케팅 채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목받는 참가기업으로는 지난해 MEGA US EXPO 2024에서 베트남 주류 유통사 ‘키엣 투옹’과 전략적 MOU를 맺은 ‘다른오름 농업회사법인(주)’가 있다. 이 회사는 한국 전통주 ‘하루주’로 IWSC(세계 3대 주류 품평회) 2024·2025에서 연속 브론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는 베트남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 파트너 기업 발굴에 나선다.

또한, 3년 연속 박람회에 참가하는 ‘CNR코스메틱스(주)’도 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옥승찬 대표가 설립한 이 회사는 자체 R&D 기반의 스킨케어·뷰티 제품을 생산하며,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두바이 등지에 수출 중이다. 지난해에는 인도와 약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는 베트남 시장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김상진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의 혁신 제품들이 베트남 현지에 전격적으로 소개되고, 기술이전 및 유통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일 ‘독서토론한마당’ 예선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9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제3회 독서토론 한마당’예선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독서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건전한 토론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3년째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5팀이 신청, 서면 심사를 거쳐 16개팀을 선발해 이날 예선전을 치른다.

초등부는 ‘성장하기 위해 경쟁은 필요하다’를, 중등부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를, 고등부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를 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본선 진출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발표된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독서토론한마당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2026학년도 수시 1617명 모집

정원 내 1421명 · 정원 외 196명… 내달 8~12일 접수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전주·진천캠퍼스 43개 학과에서 전체 모집인원 1683명 중 96%인 1617명(정원내 1421명·정원외 196명)을 수시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모집 단위별로는 학생부 교과 1371명(정원내 1193명·정원외 178명)과 실기(실적) 위주 246명(정원내 228명·정원외 18명)이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 정원내는 일반학생(면접중심) 244명, 일반학생(교과중심) 759명, 지역인재 103명, 지역인재(기회균형) 6명, 성인학습자 81명을 선발하며, 정원외는 특성화고 졸업자 8명, 특수교육 대상자 17명, 성인학습자 103명, 기회균형과 농어촌학생 각각 25명을 선발한다.

실기(실적) 위주도 정원내는 실기일반 161명, 실적우수자 43명, 특기자 24명을 선발하며, 정원외는 기회균형과 농어촌학생 각각 9명을 선발한다.

일반학생(면접중심)은 면접을 포함한 다층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교과 100%로 5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일반학생(교과중심), 지역인재, 지역인재(기회균형), 성인학습자 등은 모두 교과 100%로 평가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8~12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상담은 입학정보 통합 상담전화(063-290-1037~42, 063-290-1201~2 / 043-531-2740~41)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박노준 총장은 “우석대학교는 졸업생 1000명 이상인 전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중에서 5년 연속 취업률 1위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우석대학교에서 역량을 키워 사회에서 빛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교직원 청렴의식 제고·실천 의지 함양

전북교육청, 2025 찾아가는 청렴 교육 성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 실천 의지 함양을 위해 추진한 ‘2025 권역별 찾아가는 청렴 교육’을 7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지난달 29일 군산·익산 권역을 시작으로 △정읍·부안·고창 △전주 △남원·장수·임실·순창△완주·김제·무주·진안 등 5개 권역에서 총 2,300여 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기 중에는 집합 청렴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교 근무자들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에 연수를 운영함으로써 참여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역할 △청렴 관련 법규 이해 등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갑질 문제 실제 사례 등 실무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단순 강의 중심이 아닌 문화예술과 결합한 공연형 청렴 교육으로 참석자들이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청렴 마인드 내면화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홍열 감사관은 “청렴이 조직문화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